Global Strategy Report 16-007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분야별 과제와 추진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순 서


## Ⅰ. 한·몽 협력 여건 분석 ····· 1

1. 경제·산업구조의 특징 / 1
2. 경제협력 환경 / 7

## Ⅱ.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 13

1. 에너지·자원 부문 / 13
2. 교통·인프라 부문 / 18
3. 첨단 산업 / 22
4. 농·축산업 / 24
5. 기타 산업 / 26

## Ⅲ. 중점 협력과제 및 추진전략 ····· 29

1. 단계별 중점 협력과제 / 29
2. 추진 전략 / 34

## 요 약

□ **한·몽 경제협력 여건**

○ 몽골은 광물자원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하락과 수요 감소로 경제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향후 전략광산개발, 제조업 육성, 인프라 투자 등 개발수요 확대 전망

* 몽골정부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과제 추진 중

○ 양국 교역액은 1990년 270만 달러에서 2015년 약 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으나 직접투자는 몽골 전체 유입액의 2.7%에 불과하고 상호 보완구조를 갖는 등 향후 경제협력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큼.

□ **한·몽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 에너지·자원 부문에서 광물개발 및 사후관리·교육 분야에 적극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도 협력필요

○ 교통·인프라 개발은 광물개발과 연계되므로 연계철도 개발 고려 및 도로·호텔 건설 등의 정부계획을 면밀히 검토

○ 그 밖에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 분야와 몽골이 우위를 가진 목축업 및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추진

□ **자원개발, 산업다각화, 교통·인프라 등 3대 협력 프레임워크 단계별 중점 전략과제**

○ 단기적인 과제로는 자원개발 측면에서 전략광산 개발 참여방안 마련, 산업다각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진출 시장조사와 산업기술전수, 인프라 분야에서는 몽골정부 추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

○ 중장기적 과제로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전략광산 개발참여와 공동개발, 산업다각화 부문에서 농·축산관련 가공공장 설립 및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분야에서 전력망 교체 등 수요변화에 대응한 사업수주 등 제시

# Ⅰ 한·몽 협력 여건 분석

## 1 경제·산업구조의 특징

### □ 몽골 경제현황과 전망

○ 몽골은 1990년 체제전환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개방과 안정을 이룩하고 200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고 있음.

– 몽골은 1990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을 겪은 바 있음.

– 그러나 몽골은 다른 체제전환국가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빨리 극복하고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

– 2000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인 경기침체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

○ 2013년 1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약세, 대내외수요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 감소 등의 요인으로 2014년 7.9%, 2015년 2.3%에 그침.

– 2011~13년 몽골경제는 광업개발을 위한 고정자본 투자 확대와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건설투자 활성화로 인해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이뤄냄.

- 그러나 2013년 이후 몽골은 중국의 경기 부진 및 원자재가격 하락, 수출액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반 감소로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

- **(가계소비, 투자)** 2015년 몽골의 가계지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투자는 외국인투자환경 악화 및 몽골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감소

- **(물가)** 투그릭(Tugrug)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대내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1%p 하락한 5.9%에 그침.

- **(환율)** 수출 감소,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인한 투그릭(Tugrug)의 가치하락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를 비롯한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 바, 이는 달러/투그릭 상승압력을 가중시켜 악순환을 초래

- **(교역)** 2015년 몽골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및 중국의 성장둔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2017년 이후에 몽골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오유 톨고이 광산 프로젝트 2단계 개발 작업의 본격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몽골 경제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5월 몽골정부와 리오틴토사(RioTinto)는 약 28억 톤의 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몽골의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2단계 투자사업 계획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 오유 톨고이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금 광산으로 Rio Tinto사의 주

도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산을 개발해 1차 광산개발을 완료한 이후 2013년 8월 광산 개발 2단계 투자금 조달방안을 두고 몽골정부와 합의에 실패해 2단계 개발 작업이 2년이 넘게 중지

- 아직 오유 톨고이 프로젝트 2단계 개발 작업의 착수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국제기관들은 2016년 말 또는 2017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정부지출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가계지출은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확대로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구매력 확대 및 내수 증가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몽골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회복되기 시작해 2018년에는 5.7%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몽골의 산업구조 및 특성

○ 몽골의 주요 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크게 성장한 광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임.

- 특히 몽골의 총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4%(2015년 기준)으로 매우 높음.

- 서비스업으로는 도소매업, 운송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1 > 몽골 산업(공업) 총생산의 구성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총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 |
| **광업** | **62.7** | **62.1** | **62.4** | **58.8** | **58.7** | **58.9** |
| 석탄 | 14.0 | 18.6 | 24.4 | 24.7 | 17.5 | 9.6 |
| 원유 | 4.3 | 4.1 | 3.1 | 5.4 | 6.6 | 10.2 |
| 광물 | 41.8 | 37.7 | 33.7 | 27.1 | 33.6 | 33.8 |
| 기타 | 2.6 | 1.7 | 1.2 | 1.6 | 1.0 | 5.4 |
| **제조업** | **27.1** | **29.8** | **32.2** | **34.0** | **34.4** | **30.0** |
| 식료품 | 11.5 | 13.7 | 12.2 | 15.4 | 14.1 | 4.9 |
| 섬유 | 5.7 | 4.7 | 5.7 | 4.0 | 4.4 | 3.0 |
| 기초금속/비금속광물 | 4.2 | 5.4 | 5.6 | 6.0 | 5.4 | 4.9 |
| 기타 제조업 | 5.7 | 6.0 | 8.7 | 8.6 | 10.5 | 17.2 |
| **전력과 에너지** | **10.2** | **8.1** | **7.1** | **7.2** | **6.9** | **11.1** |

* 자료: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al Database by Sector, Composition of Gross Industrial Output, by divisions and subdivisions (Percentage share to total) (April 2016)

○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석탄생산량은 몽골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 및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은 석탄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해온 만큼 석탄 생산과 수출이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 최근 몽골 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인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프로젝트가 금융 차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석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2년간 중단된 오유 톨고이 프로젝트 2단계 개발 합의가 2015년 5월에 발표됨에 따라 구리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동 프로젝트의 착수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

○ 전통 유목국가인 몽골은 총 GDP에서 농·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며, 많은 인구가 농·목축업에 종사

- 2014년 기준으로 몽골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 전체 노동력에서 3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index mundi).

- 또한 몽골은 지구상에 잔존하는 소수의 전통 유목국가로 농·목축업이 몽골사회에 문화적,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

○ 경작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 52만 5천 헥타르에 이른 반면 동년의 농업 생산량은 감소

- 2015년 농업 생산량 중 소폭 증가한 감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곡류 생산은 전년 대비 50%이상 급감

○ 몽골 산업구조의 최대 문제점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다는 점임.

- 몽골의 전체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9.3%에서 2013년 94.9%까지 확대되었으며 2016년은 89.2%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여전히 수출의 약 90% 가량을 광물이 차지하고 있어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큼.

< 표 2 > 몽골의 수출구조: 2011-2016년

| 구분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수출총액 | | 4,817 | 4,385 | 4,269 | 5,775 | 5,155 | 4,916 |
| 광물 자원 | 금액(백만달러) | 4,302 | 4,032 | 4,050 | 5,196 | 4,615 | 4,385 |
| | **비중(%)** | **89.3** | **91.9** | **94.9** | **89.9** | **89.5** | **89.2** |
| 비광물 자원 | 금액(백만달러) | 515 | 353 | 219 | 579 | 540 | 530 |
| | 비중(%) | 10.7 | 8.1 | 5.1 | 10.1 | 10.5 | 10.8 |

* 주: 2014-2016년은 예상치 임.
* 자료: IMF, Country Report No. 15/109, 2015.

- 이와 같은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가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타반 톨고이 광산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경우 광물수출 의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몽골 경제는 전형적인 '소규모 경제(small economy)'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의 경제활동이 다양하지 못하게 나타남에 따라 소규모 국가는 특정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대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크게 노출

**《 '소규모 경제(small economy)' 의 한계 》**

○ 소규모 경제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우며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내수의 성장과 자립기반이 약하여 국내생산과 성장의 상당부분을 대외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대외개방성을 높이고 대외변수에 의한 리스크를 확대시킴.

## 2 경제협력 환경

### □ 몽골의 대외무역

○ 총 대외교역량은 1995년부터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중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확대

– 또한 몽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2011년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84% 증가한 113억 700백만 달러를 기록

– 201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출은 2014년 34.9%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2015년 들어 다시 감소

– 2014년 몽골의 수출은 오유 톨고이, 타반 톨고이 등 주요 광산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원자재가격 약세,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2015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19% 감소한 46.69억 달러를 기록

**< 표 3 > 몽골의 대외무역 추이**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수 출 | 4,780.4 | 4,384.6 | 4,272.7 | 5,774.6 | 4,669.5 |
| 수 입 | 6,526.9 | 6,738.9 | 6,354.7 | 5,236.6 | 3797.2 |
| 수 지 | −1,746.5 | −2,354.3 | −2,082.0 | 538 | 872.3 |
| 교역량 | 11,307.3 | 11,123.5 | 10,627.4 | 11,011.2 | 8,466.7 |

* 자료: IMF(2016).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장비·차량, 석유, 중간

재 및 산업재, 식료품 등

- 2015년 1~11월 기준 중국으로의 수출은 몽골의 총 수출의 84% 이상, 총 수입의 39% 이상을 차지

-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87%), 캐시미어(5%)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장비·차량(20%), 석유(19%), 중간재 및 산업재(14%), 식료품(12%) 등

**< 표 4 > 몽골의 국가별 대외무역 구조 (2015년 1월-11월)**

(단위: 백만 달러, %)

| 수 출 | | | 수 입 | | |
|---|---|---|---|---|---|
| 국 명 | 금 액 | 비 중 | 국 명 | 금 액 | 비 중 |
| 중 국 | 3,089.17 | 84.71 | 중 국 | 1,638.29 | 39.69 |
| 스 위 스 | 496.65 | 8.52 | 러 시 아 | 1,195.46 | 28.97 |
| 이탈리아 | 42.08 | 1.15 | 일 본 | 264.95 | 6.42 |
| 러 시 아 | 41.56 | 1.14 | 한 국 | 253.69 | 6.15 |
| 한 국 | 41.21 | 1.13 | 독 일 | 106.35 | 2.58 |
| 일 본 | 40.09 | 1.10 | 미 국 | 72.01 | 1.74 |
| 영 국 | 15.33 | 0.42 | 카자흐스탄 | 64.05 | 1.55 |
| 미 국 | 14.87 | 0.41 | 싱가포르 | 45.44 | 1.10 |
| 독 일 | 8.26 | 0.23 | 폴 란 드 | 41.44 | 1.00 |
| 호 주 | 6.65 | 0.18 | 오스트리아 | 35.51 | 0.86 |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 □ 몽골의 대외투자

○ 체제전환 직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감을 경험한 몽골은 WTO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가입,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투

자유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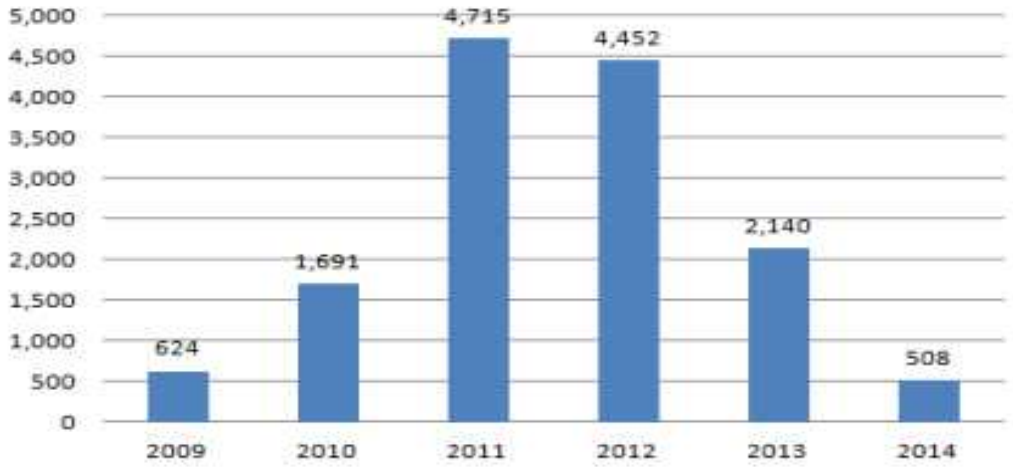
- 몽골은 1997년 WTO, 1997년 세계은행 그룹산하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가입했으며 1993년 변동환율제 채택,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오유 톨고이 광산개발 체결 이후 급증했으나 이후 광산개발을 둘러싼 분쟁의 장기화,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법으로 개정, 원자재가격 약세 등으로 감소

- 2011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거대 광산개발 본격화로 47억을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5억 달러에 그침

**< 그림 1 >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2009-14년, 유입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UNCTAD ST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flows and stock, annual, 1980-2014.

○ 몽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질탐사 및 채굴 분야(72.5%)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제 구리가격 폭락 등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은 자원개발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

- 오유 톨고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몽골 정부와 광산 메이저 기업인 리오틴토사 간의 투자비용 초과지출 및 세금 관련 분쟁 장기화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음.

- 2014년 12월 누적액 기준으로 몽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영국, 중국 등으로 주요 투자국인 유럽의 경기침체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또한 외국자본의 유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

## □ ODA(공적개발원조)

○ 2014년 대몽골 원조액은 8.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27% 감소

- 2010~2014년 국제사회의 대몽골 ODA 지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회분야,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분야, 다부문 및 범분야, 프로그램 원조 순으로 지원

○ 몽골에 대한 주요 원조공여국은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

- 일본과 몽골의 경제관계는 주로 ODA 지원 위주로 몽골의 광산개발과 관련한 인적자원관리, 교육 분야, 인프라 문제, 울란바토르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독일 정부의 개발 원조 집행기관인 독일국제협력단(GIZ)은 광물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대 몽골 ODA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

-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1991년부터 몽골의 기업환경 개선, 민간경제 육성을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외에도 재난 대응, 농목축업 분야 지원, 장애인 인권향상 등에 있어 소규모 프로그램을 시행

- 세계은행 기준으로 몽골이 상위중소득국(UMIC)에 참여하면서 국제

기구와 국가들 사이에서 몽골을 OECD DAC 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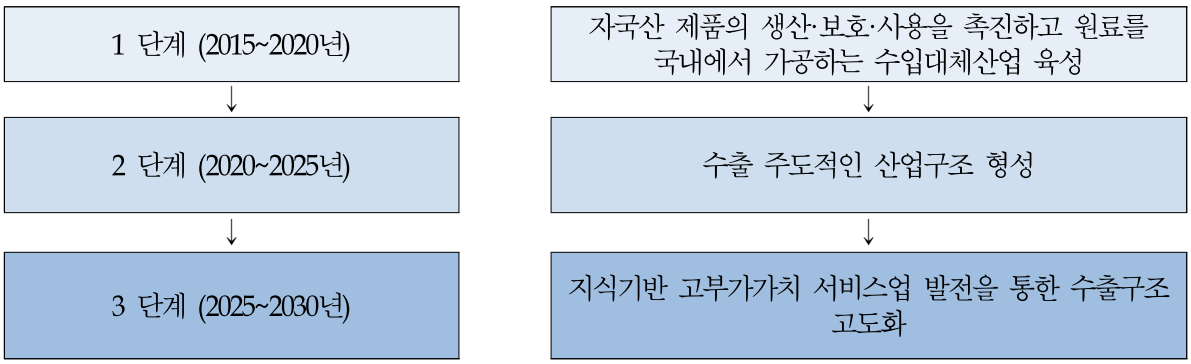
○ 몽골정부는 2015년 6월 광물자원 및 농업분야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제조업 분야 육성, 산업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산업정책'을 제정

– 몽골정부는 2009년 및 2014년 외환위기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산업화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한 점을 지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음.

– 이에 2015년 1월 29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수립된 정책 성과 평가, 새로운 단·중·장기적 산업 종합발전정책 수립

– 몽골정부는 동 정책을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2015~2020년)에서는 원료 가공 및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2단계(2020~2025년)에서는 수출 지향 산업을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3단계(2025~2030년)에서는 지식 집약적 수출 지향 산업 발전에 주력한다는 계획

**< 그림 2 > 몽골 국가산업정책의 시행단계**




* 자료: 김보라, “몽골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산업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2016. 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연구회 대외경제전문가풀 발표자료.

○ 2010년대 초반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부정적이던 몽골정부는 이후 투자유입이 주춤해지자 투자환경 개선으로 정책 선회

– 2012년 5월 외국자본의 경제 지배력 증대를 우려한 몽골정부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법을 도입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

* 몽골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광물산업, 은행, 금융과 통신업을 지정

– 외국인 투자규제법의 영향으로 2013년 상반기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약 43%)하자, 몽골정부는 외국인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신 투자법’을 제정

– 2014년에 취임한 사이항빌랙 총리는 외화유입 감소를 몽골의 GDP 급락, 투그릭 가치 폭락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FDI 활성화 및 다변화 전략 추진

– 2015년 2월 FDI 환경 개선, 중단된 대규모 유치 사업 재개 가속화, 미체결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 조치 관련 결의안(Measures to Spur Economic Activities)’통과

# II 주요 분야별 협력 방안

## 1 에너지 · 자원 부문

### □ 산업현황

○ **(광업)** 광업은 2012년 기준 몽골 산업총생산의 67.1%, GDP의 18.6%를 차지하는 등 몽골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 몽골은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1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타반톨고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광산 중 하나임.

– 몽골 정부는 2006년 15개의 전략광산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광산의 생산 가능 규모는 GDP의 5%를 넘는 것으로 추산

– 전략광산에는 구리, 금, 석탄을 비롯하여 철, 우라늄, 몰리브덴, 인, 아연, 은 등 주요 광물들이 고루 매장되어있음.

* 주로 전통적인 협력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캐나다, 미국 등이 광산 개발에 참여

○ **(전력)** 몽골에는 5개의 전력 시스템이 존재하며, 총 901MW를 생산

– 중앙 에너지 시스템에서 814MW로 80%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며, 서부 에너지 시스템은 12MW, 동부 에너지 시스템은 36MW, 알타이-울리아스타이(Altai-Uliastai) 에너지 시스템은 15MW, 달란자드가드(Dalanzadgad) 에너지 시스템은 24MW를 생산

– 몽골 전력생산의 96%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생산됨.

* 발전소가 대부분 가동된 지 40~5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송전 손실도 약 28%에 달할 정도로 저효율 상태

-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사용의 18.8%가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황이며, 향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재생 에너지)** 몽골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몽골정부는 국가 전력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시골지역, 유목민 전력 공급수단으로 재생 에너지 활용을 고려

- 태양 에너지의 경우 몽골은 1년 중 270~300일이 맑으며, 하루에 미터당 4.3~4.7 kWh 이상 생산 가능

- 풍력의 경우 전체 영토의 10%가 풍력 발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풍밀도는 400~600 W/m2로 2014년 현재 1,100 GW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수력의 경우 이론적으로 6.2GW 생산 잠재력을 가지며, 2014년 현재 1GW를 생산 가능

- 한가이아이막 지역 등 약 40여 곳에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목초지가 많아 바이오 연료원 확보가 용이

## □ 양자 간 협력 현황

○ **(에너지 플랜트)** 한국 기업은 제5 석탄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 타반 톨고이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석탄액화사업 등에 참여

- 포스코 에너지 컨소시엄(포스코 30%, 프랑스 GDF 30%, 일본 오디츠 30%, 몽골 뉴컴 10%)은 2014년 6월 약 12억 달러 규모의 제5석탄병합발전소(450MW) 프로젝트를 BOT 방식(25년 간 운영)으로 수주

- 현재 450MW 규모의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 입찰

이 진행 중이며, 포스코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

○ **(전력)** 2015년 12월 효성이 국내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몽골 전력망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짐.

– 효성은 2015년 12월 16일 1,420억 원 규모의 220kv급 변전소 2기, 315km 길이의 송전망, 975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정부와 체결

– 효성은 스태콤(STATCOM)과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손실을 줄이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

* 스태콤은 전기 송배전 시 손실이 생긴 전압을 보충하고 전력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비

○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 절약)** 2015년 12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몽골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개발센터(EDC)와 국가표준 및 인증 시스템 구축, 기술·인력 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건물 에너지 관련 전문 시험·인증기관인 KCL과 몽골 내 에너지 정책 수립·평가 기관인 EDC간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과 기술 협력을 통해 향후 국내 관련 기업의 몽골 진출 시 정부 인허가 및 등록이 수월해질 전망

## □ 향후 협력방안

○ 기존 에너지·자원 부문의 협력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서 양자 간 협력 메커니즘 확립 필요

– 에너지·자원 부문의 협의 기구를 통해 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보다 다양한 양국의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함.

– 이를 위해서 1999~2011년간 지속되었던 '한-몽 에너지·자원 협

력 위원회'가 2012년 이후 중단되었는데, 이를 재개시켜 에너지·자원부문 협력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자원 부문과 관련한 정책, 제도,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함.

* 위원회에 양국의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기관들 간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력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광산개발, 광물가공 분야 이외에 광산개발 사후관리, 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

-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몽골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안전기준 제공, 가스 안전관리 현지교육과 정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몽골의 각 지방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몽골에 '한·몽 신재생 에너지 연구·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협력 긴밀화

-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분야인 만큼(예. 신재생 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이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 기술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중국은 몽골 광업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동시에 몽골 광물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수요 독점자임.

* 몽골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을 한국 또는 타국으로 수출할 때도 중국 영토 경유가 불가피한 바,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

– 몽골 자원개발에 경험이 없는 일본과의 컨소시엄 형성이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참여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석탄공사가 투자한 홋코르 탄광도 중국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패인

–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몽골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중국의 대몽골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

## 2 교통 · 인프라 부문

### □ 산업현황

○ **(도로·철도)**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몽골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상 교통인프라 부재

*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중국의 항구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함.

– 몽골의 도로 중 울란바토르와 각 주를 연결시키는 도로는 총 11,200km인데 이중 1,500km만이 포장도로이며, 1,440km는 자갈도로, 1,346km는 흙으로 된 도로

– 몽골의 철도 길이는 총 1,815km이며, 이중 1,110km가 중앙철로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중국 베이징을 이어주며, 238km가 동몽골을 러시아철도와 연결시키고, 나머지 477km는 주요 철로에서 갈라지는 철로

– 몽골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교통인프라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

– 현재 20여 개의 교통 부문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철도 부문에 33억 4500만 달러, 도로 부문에 25억 8100만 달러, 항공 부문에 2억 5000만 달러, 해운 부문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건설)**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 붐 확대

– 몽골 주택 개발시장은 민간 95%, 공공 5%로 민간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 공급을 주도

–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아파트 및 호텔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건설사들도 몽골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건설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건설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중·저급 자재 공급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몽골에서도 고급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양자 간 협력 현황

○ **(철도)** 한국은 한국자원공사 및 10여개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한국 콘소시움을 통해 ① 고비 사막 내에 위치한 타반 톨고이 및 오유 톨고이 등 광산지, 철도노선 경유지에 대한 현장의 자연적 여건 및 설계/시공과 관련한 제반 기초 조사와 ② 현재 몽골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대륙철도 노선인 TMGR LINE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수행

- 한-몽 신규 철도건설을 위한 몽골철도 건설 사업단 구성 및 사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단, 몽골교통부, 러시아철도공사 간 철도협력 MOU 체결('09.3월)
  · 공단, 공사 및 21개 건설사 참여 (주간사 롯데건설, '10. 8)
  · '10. 10 : 몽골 현지조사 및 개략설계 시행 (견적TF 구성)
  · 몽골 교통부장관 방한('11.2)시 1단계 사업 예비제안서 제출 요청
  · 1단계 철도사업 예비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개최 ('11.3.9)

- 몽골철도공사와 철도사업협력 MOU 체결 현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사업단(롯데건설 대표)과 몽골철도공사(MTZ)간 1단계 철도사업협력 MOU 체결 (서울 롯데호텔, '11. 3. 24)

· MOU 주요 내용: 한국 사업단이 몽골철도 1단계 구간(약 1,100km)에 대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하였고 MTZ과 한국 사업단은 본 사업에 관해 상호 협력하며, 양측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 공유 및 사업구조, 금융조달, 투자자 구성 등에 관해 상세 협의를 추진

– 향후 1단계 사업 뿐 아니라 2단계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관련한 연계사업(여객 및 물류 터미널 등) 발굴이 필요

## □ 향후 협력방안

○ **(철도)** 광물개발사업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ODA 및 EDCF와 연계된 도로건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몽골 정부는 현재 다양한 교통부문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

* 2001년부터 인접국과의 국제 교통망 연계와 국내 교통망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에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몽골은 광대한 국토에 남북을 잇는 단선 철도가 유일한 간선 철도이며, 남고비 지역의 오유톨고이 및 타반톨고이 광산이 간선 철도와 연결되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철도 부설이 필요

– 나아가 간선 철도를 동몽골 지역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하려면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 노선이 추가로 필요

– 몽골이 자원수출 노선에 관한 對중국 의존도 감소 및 다각화를 원하고 있는 바, 몽골에서 개발한 자원을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나진항까지 수송하는 노선 개발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있음.

○ **(도로)** 지역을 잇는 포장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도로사업의 경우 단기에 대규모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울란바토르와 국경 도로 등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도로건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조직 구성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교통)**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시내 도로망 정비 사업 등에 참여 기회를 검토할 필요

○ **(건설업)** 호텔, 빌딩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지의 건설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주 참여방안 마련 필요

– 몽골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 도시개발 활성화로 건설 수요가 재차 급증하고 있음.

– 현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한국 건설업체들은 이미 풍부한 해외건설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 내부설비 등 연관분야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고급 자재가 한국의 인테리어 기술과 결합되었을 때, 고급 주택, 최신식 빌딩, 고급 호텔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

– 이와 함께, 내부 설비 부문(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창문, 냉난방시설 등) 진출도 검토할 필요 있음.

## 3 첨단 산업

### □ 산업현황

○ **(전자통신)** 한국을 통해 몽골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원조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과 학문을 습득하려는 의지, 수도에 집중된 인구 등으로 인해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 한국, 미국 등 IT 선진국에 의해 기술원조와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부가 인프라 개선과 IT·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 그러나 낮은 소득수준, 비싼 인터넷 비용,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교통인프라 부족, 영어 사용능력 부족(정부 웹사이트), 분산된 인구(수도권 제외)라는 취약점을 보유

○ **(의료서비스)** 몽골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각 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대부분 공적 부문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

– 최근에는 민간병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세금에서 충당되었던 의료 서비스 비용에서 2009년에는 개별 지불금액의 비중이 49%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몽골의 우선 과제인데,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부재하며, 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 □ 양자 간 협력 현황

○ **(전자통신)** 한국의 높은 ICT 기술과 한-몽 간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해 ICT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한국 스마트카드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합작으로 울란바토르

스마트카드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 기업은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1,500만 달러를 투자

- KT계열사인 KT SAT은 2016년 말에 발사할 무궁화호 5호 대체 위성 중계기 4기를 몽골에 임대하기로 결정

○ **(의료서비스)** 최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몽골 환자와 의료 기술을 배우려는 몽골 의료진이 증가하면서 의료부문의 교류가 빠르게 확대

- 한국계 병원은 1990년대부터 몽골에 진출했으며, 몽골 민주화 이후 연세의료원과 울란바토르시가 합작으로 최초의 외국계 종합병원인 연세친선병원을 설립

- 이와 더불어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이 몽골 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

## □ 향후 협력방안

○ **(전자통신)** ICT 산업에서 정부 협력 중심에서 점차 민간 협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투자 포럼 또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업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한국 기업이 몽골 ICT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몽골 기업들과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의료서비스)** 한국 의료기술이 몽골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한·몽 병원 및 의료진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술 및 기술 협력을 추진

## 4 농 · 축산업

### □ 산업현황

○ 농·축산업은 몽골 GDP의 20%를 차지하며, 41%의 노동인력을 고용

- 농·축산업에서 축산업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축산업 종사자의 85%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며, 축산활동도 영토의 80%에서 이루어짐.

- 농업은 농·축산업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종사자의 15%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며, 농업활동은 영토의 1%에서만 이루어짐.

- 몽골 전체 수출에서 농·축산물의 비중은 약 7%이며, 수출품으로는 주로 가죽, 캐시미어, 울, 육류 등

○ 몽골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곡물, 감자, 야채를 대부분 자급하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려는 계획추진

- 2000년대 초부터 동몽골 농업개발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9년 코이카가 27만ha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이외에 농축산업 원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가공 기업들을 보다 많이 설립하는 등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농축산업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 양자 간 협력 현황

○ **(농업)** 동몽골에 200ha 시범농장 운영사업(400만불)이 진행 중이나, 본격적인 농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울란바토르 인근의 비닐하우스 농업, 몽골 북서부 셀렝게 지역의 밀, 감자 농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업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4월 KOICA가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농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 이 사업은 몽골에 있는 SAMO 식품연구소에서 선진화된 농식품 위생관리와 분석시스템 구축, 몽골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식품을 수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

## □ 향후 협력방안

○ **(축산)** 축산과 관련하여 위생, 육류가공, 가축 및 털 가공 등 협력 과제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전염병) 가축 위생 및 전염병 관리와 관련된 기준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몽골의 관련 인력을 교육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몽골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은 새로운 육류 수입처를 확보

- 가축농장 주변에 가축사료를 생산하고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통합형 농장시스템 구축

- (육류 가공) 한국 기업의 농업 및 축산업 분야 진출 시 유기농 농장을 설립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내몽골, 동북3성 등)과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의 중산층 및 고소득층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이 유망

○ **(가죽·털 가공)** 목축업을 대형화하고,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캐시미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5 기타 산업

### □ 산업현황

○ **(관광)** 몽골은 청정한 자연과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몽골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임.

- 칭기즈칸의 탄생지인 헨티 아이막을 비롯하여 몽골제국의 옛 수도인 하라호름, 흉노와 돌궐 유적 등 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음.

-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의 초원을 동경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증가

  * 2001년 이를 반영하듯 최근 몽골에서는 호텔 신축이 늘어나고 있으며, 게르 리조트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

○ **(금융)** 몽골 은행들은 업무의 절반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금융업이 매우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있음.

- 몽골 증권시장 역시 현재 약 90여개의 현지 증권회사와 약 20여개의 외국계 증권회사가 난립해있는 등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음.

- 하지만 몽골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향후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 IPO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조)**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적극 펼쳐지고 있으나, 재원부족, 적은 인구, 운송 인프라의 미비, 낮은 가격경쟁력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15년 몽골정부는 이전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 2015-2020(이하 2015-2020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 □ 양자 간 협력 현황

○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15년 8월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환경녹색개발관광부와 MOU를 체결

- 이 협약은 몽골과 제주 간 상호 의료관광 활성화 및 문화·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몽골 관광협회 소속 여행업계 임직원을 초청해 제주 의료관광 상품개발 설명회도 개최

○ **(금융)** 전국은행연합회는 2016년 2월 1일 몽골은행협회와 한·몽골 은행협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양 기관은 워크숍, 연수·교육 등을 통해 은행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은행산업 관련 정보 교환, 은행권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대화창구 등을 마련추진

## □ 향후 협력방안

○ **(관광)** 한국의 관광기업이 협력 투자를 통해 역사·문화 및 자연관광자원을 결합한 시장성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몽골 여행의 성수기는 7~8월이나, 겨울철 여행객을 끌기 위한 겨울 스포츠 관광산업을 개발한다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광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호텔경영 기법의 전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금융)** 몽골에서는 아직 금융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진출 시에는 직접투자를 통해 은행을 무리하게 신규로 설립하기보다는 지분 인수 참여 및 M&A 형식이 유망하며,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도 대형 은행이 아닌 중간 규모의 은행을 매입하여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

○ **(제조)** '2015-2020 전략'에 포함된 제조업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공업에 대한 진출이 유망

– 수입대체상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수입대체상품으로는 식품, 섬유, 제지 등의 품목이 포함

– 제조업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 3시장을 겨냥할 경우 몽골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Ⅲ 중점 협력과제 및 추진전략

## 1 단계별 중점 협력과제

□ (기본 원칙) 몽골의 현 정치·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실제 협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한·몽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

○ 기존 한·몽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몽 협력은 양국의 현실적 협력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성, 점진성, 호혜성, 다층성, 차별성, 통합성 등 6대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

○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중점 협력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즉 우호적 협력 환경 조성에 대몽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단기적 차원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필요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 가능한 상생 협력 사업의 발굴과 진행, 성공적인 협력 사례 창출 등이 필요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

○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은 단기적 차원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몽 협력 3.0시대'를 열어 나가야 함.

○ 중장기적 차원의 핵심 목표는 한·몽 협력관계의 질적 발전이며, 한·몽 경제협의 새로운 차별성을 지닌 맞춤형 산업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점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

검해 줄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상설협의체 조직은 원칙적으로 민·관의 공동 협력 체제를 기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임.

○ 한국과 몽골은 '상설협의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과제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표 5 > 한-몽 협력 기본 원칙**

| 협력 원칙 | 주요 특징 |
|---|---|
| 단계성 |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협력 방안 추진 |
| 점진성 | 한국과 몽골의 정치·경제 상황 고려한 점진적 협력 진행 |
| 호혜성 | 한국과 몽골의 공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 방안 모색 |
| 다층성 | 경제협력 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실질적 관계 발전 추구 |
| 차별성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협력 방안 도출 |
| 통합성 | 민·관·산·학·연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 **(단기 중점 협력과제) 단기 중점 협력과제의 핵심 목표는 한국과 몽골 간 확고한 신뢰 구축에 있으며,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함.**

**< 표 6 > 한·몽 단기 중점 협력 과제 구성도**

| | |
|---|---|
| **시기** | ● 단기(2016년 8월~2018년 2월) |
| **목표** | ● 경제협력 파트너십 혁신<br>● 유라시아 가치 사슬 참여 방안 마련<br>● 공동번영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
| **기본방향** | ●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br>● 경제협력 기반 조성<br>● 교역·투자 규모 점진적 확대<br>● 중점 협력과제 수행을 위한 추동력 확보 |

| | | |
|---|---|---|
| 협력기반 조성 | 정부간·민간 경제협력체계 개선 | ● '자원협력위원회' 구조 개편<br>●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창설<br>(혁신 산업 프레임워크 전담기구 창설하여 2016년 12월 1차 회의 개최)<br>● '비즈니스 포럼' 개최(2016년 12월)<br>● '차세대 리더 포럼' 개최(2017년 6월) |
| | EPA 체결 | ● EPA 공동 연구 진행(~2017년 5월)<br>● EPA 협상 개시(2017년 6월) |
| | 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 | ● 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 및 가동<br>(~2017년 5월) |
| 3대 혁신 프레임워크 및<br><br>10대 중점과제 | 광물자원개발 및 연계산업발전 | ● 전략광산 개발 협력 참여 방안 마련<br>● 전략광종 및 지역 선정 위한 정부 간 협의 진행 |
| | | ● 광물 심층가공 플랜트 현지 수요 조사<br>● 광물 심층가공 플랜트 협력 참여 방안 마련<br>● 광물 심층가공 플랜트 수주 시도 |
| | | ● 상·하류 연계 프로젝트 현지 수요 및 시장 조사 |
| | 산업다각화 | ●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업 진출 사례 조사<br>● 중소기업 현지 진출 위한 포털 사이트 개설<br>●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업 선도 진출 추진 |
| | | ● ODA 연계 유기농 농·축산물 지원 계획 마련<br>●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 종합 프로그램 마련<br>● 유기농 생산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시행<br>● 농축산물 검역 위생관리 시스템 지원 방안 마련 |
| | | ● 몽골 관광청과 한국관광공사 교류 협력 증진<br>● 지자체(울란바토르와 서울)간 관광 협력 추진<br>●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MOU 체결<br>● 양국 간 관광 협력 사업 추진<br>● 관광업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br>● 호텔 경영기법 전수 |
| | | ● 기술인력 양성 종합 프로그램 마련<br>● 산업다각화 중점 분야 기술자 초청 연수<br>● 이·공계 유학생 지원 공동기금 조성<br>● 현지 기술 고등교육기관 커리큘럼 개편 사업<br>● 현지 기술 고등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사업 |
| | 교통·에너지·사회 인프라 | ● ODA 연계 철도·도로망 정비·확충 수요 조사<br>● ODA 연계 철도·도로망 정비·확충 수주 시도<br>● 물류 환경 개선 지원 |

| | | |
|---|---|---|
| | 확충 | ● 수송 루트 개발, 통관 시스템 정비<br>● 종합교통통제 시스템 정비 지원 |
| | | ● 전력 수요 예측 프로그램 지원<br>● 전력 공급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지원 |
| | | ● KSP 연계 사업 진행<br>● 수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정책자문<b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도 환경 협력 사업 마련<br>● 광해관리공단 현지 사업 확대 |

□ (중장기 중점 협력과제) 중장기 중점 협력과제의 핵심 목표는 한국과 몽골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에 있으며, 상생 및 호혜적 형태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표 7 > 한·몽 중장기 중점 협력과제 구성도

| | | |
|---|---|---|
| 시기 | | ● 중·장기(2016년 8월~2023년 2월) |
| 목표 | | ● 경제협력 파트너십 혁신<br>● 유라시아 가치 사슬 참여 방안 마련<br>● 공동번영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
| 기본방향 | | ● 경제협력 채널의 다변화<br>● 주요 경쟁국과 차별화된 협력 사업 진행<br>● 중점 협력과제 추진<br>● 구체적 성과 도출을 통한 협력관계의 질적 발전<br>● '한·몽 협력 3.0시대' 개막 |
| 협력기반 조성 | 정부간·민간 경제협력체계 개선 | ●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정례화 (매년 12월 개최)<br>● '비즈니스 포럼' 정례회(매년 12월 개최)<br>● '차세대 리더 포럼' 정례화(매년 6월 개최) |
| | EPA 체결 | ● 한·몽 EPA 체결(~2018년 5월) 및 발효 |
| | 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 | ● 공동 투·융자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재원 확충 |
| 3대 혁신 프레임워크 및 10대 중점과제 | 광물자원개발 및 연계산업발전 | ● 전략광산 시범개발 착수 및 확대 |
| | | ● 광물자원 개발 수주 참여 및 확대 |
| | | ● 전략광산 공동개발 연계 사업 발굴<br>● 전략광산 공동개발 연계 상·하류 프로젝트 추진<br>● 자원개발 연계 구리 제련소 건설 사업 참여 |

| | | |
|---|---|---|
| | | ● 자원개발 연계 제철소 건설 사업 참여<br>● 자원개발 연계 정유공장 건설 사업 참여 |
| | **산업다각화** | ● 산업다각화 성공사례 축적 및 진출 확대 |
| | | ● 유기농산물 재배 농장 설립 및 운영<br>● 고품질 육가공 공장 설립 및 운영<br>● 농축산물 검역 위생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br>● 공동 패션 브랜드 설립 및 운영<br>● 유라시아 주요국(중국, 러시아) 시장 진출 개시 |
| | | ● 종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br>● 호텔 및 레저 타운 건설 사업 추진<br>● 종합 관광 단지 개발 사업 추진<br>● 지자체간 관광 협력 확대 |
| | | ● 고급 기술인력 양성 종합 프로그램 전수<br>● 몽골 기술인력 한국 연수 프로그램 제공<br>● 산업기술대학(POLITEC) 설립 및 운영 지원 |
| | **교통·에너지·사회 인프라 확충** | ●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수주 확대 추구 |
| | | ● 댐 건설 사업 추진<br>●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br>● 전력망 교체 사업 추진<br>● 철도·도로망 정비·확충 사업 참여<br>● 도시간 연결 도로망 건설 사업 참여 |
| | | ● 도시 상·하수도 교체 및 정비<br>● 중앙 청정시설 개선 사업 참여<br>● 환경보호 분야 협력 프로그램 수행<br>● 사막화 방지 사업 진행<br>●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

## 2 추진 전략

□ **(전략적 강조점 관련) 상술했듯이, 단기·중장기 중점 협력과제에 대한 유형별 분류와 전략적 차별화에 기초한 단계별 및 맞춤형 경제협력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유라시아 가치 사슬(Eurasian Value Chain)'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차별화된 협력사업의 발굴 필요함.

○ 정부주도형(민관 협력 과제) 사업과 및 민간주도형 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몽골 측의 최신 경제발전전략과 연계된 경제협력 수요를 감안하여 상생 및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앞으로 한국과 몽골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향은 기존의 단순한 교역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제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협업관계를 형성하여 유라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특히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 변화, 즉 몽골 국가산업정책의 3단계 발전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중심경제'에서 미래 '투자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대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몽골의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 필요

○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유라시아 가치 사슬'에 입각한 '한·몽 전략적 협업'은 '한·몽 협력 3.0시대'의 개막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중점 협력과제 수행 관련) 저성장 및 저유가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안에 경제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중점 협력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추동력 확보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먼저, 저유가로 상징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몽골 광물자원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추세, 몽골의 정치 및 경제 거버넌스 불안정 지속, 몽골 경제성장 침체 등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들과 몽골의 내부 환경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 방안 마련 필요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협력기반 조성(협력체계 개선을 통한 협력의 제도화, EPA 체결을 통한 현지 투자환경 개선 등), 몽골 현지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시장성 분석에 기초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단계적 수행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몽골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산업(에너지 및 광물자원, 교통 인프라, 농축산업, 관광산업, ICT 산업 등)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점 협력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함.

**□ (협력 체계 개선 관련) 한국과 몽골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협력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중점 협력과제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한국정부 차원에서 몽골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산하 전문부서 설치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따라서, 기존의 정부 간 양자협력 추진체계를 '한·몽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며, 몽골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몽골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몽골정부는 산업 다각화 차원에서 단순한 광물자원 개발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몽 협력 혁신 프레임워크 차원의 중점과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과 산업협력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재원 마련 관련) 현 시점에서 볼 때, ODA와 KSP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중장기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플랫폼'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몽골의 경우 경제성장 잠재력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과 몽골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 활용과 재원 마련이 필요

○ 3대 혁신 프레임워크 및 10대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ODA와 KSP, 기타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함.

○ 한국과 몽골 수출입은행 주도로 투·융자 플랫폼을 조성하고, 프로젝트 지원 심사 시 단기적 경제성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전략적 필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거버넌스 구축 관련) 3대 혁신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적인 관건인데, 이것은 정부간·민간협력체계의 생산적 구축과 유기적 연계,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 등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 중점 협력과제의 성과 관리, 애로사항 개선, 정책 개발, 사업 평가 등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 부서와 인력 양성 필요

○ 따라서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관련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담당자가 상당기간 교체되지 않아야 함(적어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수).

○ 몽골 정부 내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정책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상호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차세대 리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점 협력 사업 진행과 미래 협력관계의 내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필요

○ 참고적으로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올해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면서 관계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과 몽골 간에도 '한·중앙아 협력사무국'과 유사한 형태의 상설 전담기구('한·몽 협력사무국')의 마련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창조경제 실현 관련) 앞서 지적했듯이, 10대 중점과제가운데 몽골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있음.**

○ 세계경제 환경의 구조적 재편과정 속에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유라시아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차원

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유라시아 국가전략 실현의 일환으로, 한국은 '유라시아 가치 사슬 구축'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몽골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해 나갈 필요 있음.

○ '유라시아 가치 사슬'이란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 간 '전략적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과 몽골의 비교 우위 산업 경쟁력(한국의 고급 가공기술, 몽골의 원자재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유라시아 신 시장 개척에 필요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임.

○ 다시 말해서, 한국과 몽골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양국 기업들 간 전략적 산업협력 작업을 통해 몽골의 배후시장(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함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 등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구현에 이바지 하자는 것임.

○ 끝으로 몽골 측의 협력 수요를 감안하여 산업협력 방안을 현실적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 사업 및 산업 현대화 정책 컨설팅 사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ICT와 결합한 친환경 농장 및 육가공 공장 건설 사업, 패션 브랜드 개발 사업, 중소 규모 공단 건설 사업,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댐 및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작성자

◈ KOTRA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전문위원
◈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박정호 연구위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민지영 전문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강부균 전문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윤지현 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권가원 연구원

Global Strategy Report 16-007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분야별 과제와 추진전략**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85-9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